

주제별 성평등 교육 수업 활용가이드

‘자아정체성’ 편



I . [자아정체성] 주제, 성평등하게 수업하기

아동·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 역할, 사회화, 다양한 정체성에 관한 성평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자아 인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성별 이분법으로 대표되는 ‘정상성’ 이데올로기는 성별·나이·계급·장애와 같은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아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자아정체성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세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자기 이해**, 나아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이다. 성평등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밀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바탕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필요성

고정관념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손쉬운 도구이다. 개별적인 특성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보다 몇 가지 특성으로 일반화·범주화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화에는 오류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성별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성역할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성은 쉽게 지워진다.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따라 타인을 평가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평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아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성평등한 자아정체성은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깨운다. 여자도 씩씩할 수 있고 남자도 세심할 수 있다는 열린 사고는 개인을 성별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렇듯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자아정체성 교육이란 단일한 특성으로 치환될 수 없는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세부 주제

- **성별고정관념** :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 규범 인식하기, 내 안의 성별고정관념 발견하기, 성별고정관념의 허구성과 과장성 이해하기 등
- **자기 이해** :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하기, '여자/남자답게'에서 벗어나 '나답게' 행동하기 등
- **공동체 문화** :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하기, 차별·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내 안의 소수자성 인식하기, 차이와 다양성 이해하고 존중하기 등



교사의 check-point!

- **성별고정관념** : 성평등한 자아정체성 교육의 목적은 남학생에게서 '남자다운' 특성을, 여학생에게서 '여자다운' 특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특성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 **자기 이해** : 사람은 주변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가므로 어떠한 특성이 타고난 것인지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유한 특성과 후천적 영향을 대립 관계로 보기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방점을 둔다. 관련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이해의 출발점에 서게 되며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여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 **공동체 문화** : 성평등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올바른 자기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타인 또한 오류이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비로소 '나답게' 존재할 수 있다.

II. 수업소개 및 콘텐츠 활용팁

1. [자기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저학년, 1차시(40분)

I 수업 필요성

저학년 학생들은 주변 어른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어른들의 말이나 미디어에서 본 모습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 짓는 경우가 많다. 고정관념은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수업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진짜 ‘나다움’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이럴 때 활용해요!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등

- (예) 소꿉놀이를 할 때 여학생은 요리를 하고 남학생은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 (예) 여학생은 경찰, 소방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I 수업 내용

● 목표

- 우리 주변의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진정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

●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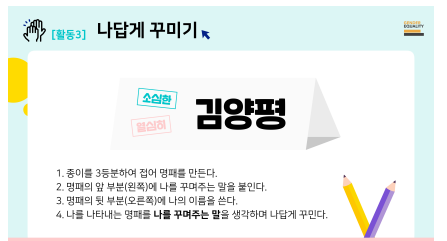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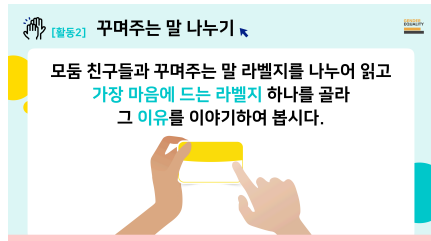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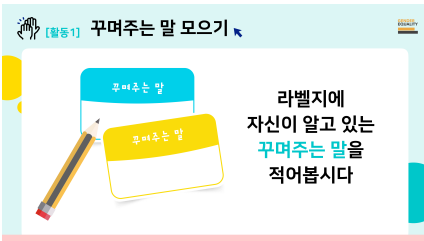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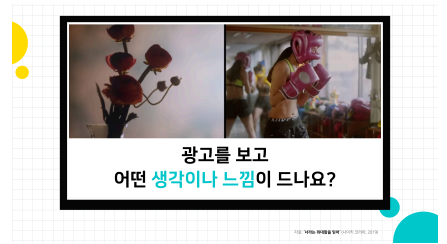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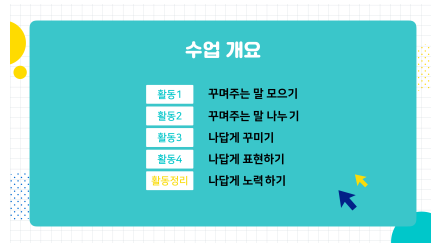
활동1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친구에게 읽어주기
활동2	나답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때 느낀 감정은 어땠는지 적기
생각1	여아가 태권도를 하는 그림일기, 남아가 발레를 하는 그림일기를 보기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기
생각2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움에 집중하려면 서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기
마무리	나다움을 존중하기 위한 학급 규칙 정하기

● 유의사항

- 남들이 보는 나보다는 평소 가장 나다운 모습을 솔직하게 적을 수 있도록
교사가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자기 이해] 나를 나답게 꾸며요



Ⅰ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저학년-중학년, 2차시 (80분)

Ⅰ 수업 필요성

- 이 수업에서 '꾸며주는 말'이란 일상에서 학생들이 듣는 칭찬, 평가와도 같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칭찬하는 말도 달라지는데 여아들은 '꼼꼼하다, 상냥하다'라는 말을, 남아들은 '씩씩하다, 활발하다'라는 말을 주로 듣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에게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찾아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교우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짜 나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점들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 학생들이 성별고정관념이 드러난 말을 자주 할 때
(예) “글씨는 원래 여자들이 잘 쓰잖아”, “우리 반 달리기 대표는 남자가 해야지”
- 성평등 요소를 가미한 학기 초 친교 활동이 필요할 때 등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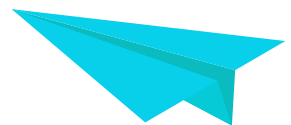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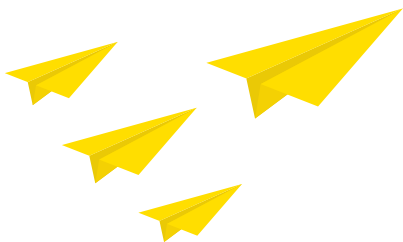
-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꾸며주는 말’을 찾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 활동

동기유발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 나누기
활동1	라벨지에 자신이 알고 있는 ‘꾸며주는 말’ 적기
활동2	모둠 친구들과 라벨지를 나누어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이유 설명하기
활동3	나에게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골라 자신의 명패에 붙이기
활동4	명패를 들고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 자기소개하기

● 유의사항

- ‘활동3’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고를 때 기존의 성별고정관념과 반대되는 말을 골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한 자아정체성 교육의 목적은 남학생에게서 ‘남자다운’ 특성을, 여학생에게서 ‘여자다운’ 특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데 있다. 학생이 기존의 성 역할 규범과 일치하는 특성을 적었다고 하여 수정하게 해야 한다거나 수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3. [공동체 문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2) 분홍 원피스를 입은 소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2)




『분홍 원피스를 입은 소년』

수업 개요

동기유발1	말레이 줄거리 말하기
동기유발2	내가 만약 빌이 된다면
활동1	빌, 무엇이 힘들었니?
활동2	토론 역할극
활동3	사이다 대본 만들기
수업 마무리	소감 나누기

[활동1] 빌, 무엇이 힘들었니?


빌이 자신의 성별이 바뀌고 나서 겪었던 일중, 빌을 힘들고 화나게 한 일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서 적어봅시다!



[활동2] 토론 역할극

토론 역할극 2 역할극 주인공과 인터뷰

- 역할극의 주인공 모두와 인터뷰를 해봐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빌과 인터뷰를 해봐요.
"이 상황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활동2] 토론 역할극

토론 역할극 3 역할극 관객과 인터뷰

- 관객들과 인터뷰를 해봐요!
"역할극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실제 여러분이 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빌의 선생님이나 필립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활동3] 사이다 대본 만들기

[활동 1]에서 붙인 포스트잇 상황을 가지고 모둠별로 <사이다 대본>을 만들어 봅시다.

차별의 주체가 하는 말은 바꾸지 않고, 주변 사람과 빌의 행동과 말을 바꾸어보는 활동입니다.

Ⅰ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80분)

Ⅰ 수업 필요성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수업을 통해 누군가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방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해요!

-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특성으로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때
-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특성을 놀림거리로 삼는 학생이 있을 때 등

I 수업 내용

● 목표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차별에 대항하는 대본을 만들어 역할극을 할 수 있다.

● 활동

동기유발	1안. 줄거리 한 문장씩 말하기 2안. 나도 빌처럼 성별이 바뀐다면?
활동1	성별이 바뀐 이후 빌이 힘들고 화가 났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포스트잇에 적기
활동2	준비한 대본으로 역할극 하기 역할극에 참여한 학생과 관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기
활동3	모둠별로 주변 사람과 빌의 행동·말을 바꾸어 새롭게 대본 작성하고 발표하기

● 유의사항

- 이번 수업의 목표는 차별에 대항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므로 ‘활동3’에서 빌이 들은 차별적인 말은 그대로 두고 당사자인 빌이나 주변인의 반응을 바꿔보도록 지도한다. 차별적인 말 자체를 바꿔버리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4. [공동체 문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3) 뜨개질하는 소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3)

『뜨개질하는 소년』

수업 개요

수업 일시	
활동1	책 내용 파악하기
활동2	내 안의 라피 찾아보기
활동3	또 다른 라피를 위해
수업 마무리	

[활동1] 책 내용 파악하기

[함께 책 읽기(13~4, 15~16, 27~28)]

작가는 왜 목도리를 무지개색으로 나타냈을까요?

이 책에서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사, 문장이나 책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활동2] 내 안의 라피 찾아보기

“ 너는 남자인데/여자인데 ~~하구나? ”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나, 떠올랐던 생각**을 색종이에 적어 봅시다.

[활동3] 또 다른 라피를 위해

칠판에 붙은 색종이의 주인공들에게 격려, 응원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색종이에 그 말을 적어서 응원의 말을 전해봅시다.

[활동3] 또 다른 라피를 위해

연대의 목도리 만들기!

- 격려와 응원의 색종이를 모아 목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다 만든 목도리는 복도 쪽 창가에 전시해봐요!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1차시(40분)

I 수업 필요성

- 초등학교 학생들은 동성에 대한 선망이 강한 편이다.
특히 중·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디어 매체에 등장하는 ‘근육질의, 거친, 막무가내인’ 남성 이미지를 ‘남자답다’라고 여기고 동경하는 경우가 많다.
‘힘’에 대한 선망은 또래 집단 사이의 서열 관계를 만들고 ‘여자다운’ 특성을 낮잡아보게 한다.
- 이러한 또래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수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별고정관념에 100% 부합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소수자성을 발견함으로써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소속감·유대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나아가 연대의 목도리를 만들며 평등하고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럴 때 활용해요!

- 반 학생들이 ‘남자다움’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강할 경우
-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자성으로 인해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등

I 수업 내용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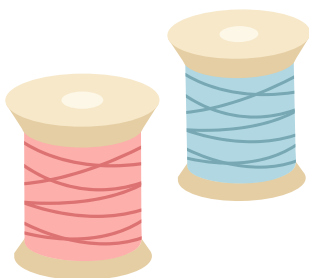
- 고정관념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모아 연대의 목도리를 만들 수 있다.

● 활동

동기유발	책 내지 그림을 보고 주인공의 성격이나 책의 내용 추측하기
활동1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책 내용 파악하기 책에서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사, 문장, 특징 등 찾아보기
활동2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상처받은 말과 그때의 느낌·생각을 색종이에 적어 칠판에 붙이기
활동3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 응원의 말 색종이에 적기

● 유의사항

- 주인공 라피는 남자이지만 수업의 주안점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특성’으로 설정한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깊이 공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외국인 등 다른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5. [성별고정관념] 성인지적관점의 교육연극 수업 안내(2) 우리 안의 성 고정관념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연극 수업 안내(2)

우리 안의 성 고정관념

수업 개요

연극놀이
드라마 활동-1
드라마 활동-2
반주활동

손님 모셔오기
그대로 멈춰라
인물로서 살아보기
느낌 나누기

차시/시간
차시 2차시/2차시
시간 80분

손님 모셔오기

활동 방법

1. 의자를 참가인원보다 한 개 많게 원형으로 놓고 둘러앉습니다.
2. 짧은 동요를 불러주거나 모두 함께 부르며 놀이를 합니다.
3. 빈자리의 양 옆에 앉은 두 학생이 손을 잡고 누군가에게 가서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4. 초대 받은 학생은 두 학생과 함께 빈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5. 새롭게 생긴 빈자리의 양 옆에 앉은 두 학생이 또 다른 손님을 모셔옵니다.
6. 노래가 끝났을 때 빈자리의 양쪽에 있는 두 학생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드라마 활동-1] 그대로 멈춰라

활동 방법

1. 모두 공간을 자연스럽게 견습니다.
2. 권다가 교사가 불러주는 문장에 알맞은 몸짓으로 정지합니다.
 - 여자/남자 아이가 뛰어옵니다.
 - 여자/남자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 여자/남자 아이가 별재를 보았습니다.
 - 여성/남성이 운전 중입니다.
3. 교사는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동작과 표정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가서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요청합니다.

[드라마 활동-2] 인물로서 살아보기

활동 소개

공간을 상상하여 재현하고 관련된 인물이 되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봅니다.
그 공간 속에서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인물로서 살면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활동입니다.

[반주활동] 느낌 나누기

오늘 했던 활동을 돌아보며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그대로 멈춰라" 활동에서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동작은 왜 성별에 따라 표현이 달랐을까요?

- 실제로 일상 속에서 성별에 따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요?
- 표현 중 과장된 부분은 없었나요?

I 수업 대상 및 권장 차시 : 초등 고학년, 2차시(80분)

I 수업 필요성

-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여성/남성은 실제보다 과장된 모습이다.
'여성'이라고 하면 긴 생머리에 잘록한 허리, 하이힐을 신은 모습을 떠올리지만, 현실에 그런 모습을 한 여성은 많지 않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비하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 학생들이 성별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성/남성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연극 기법을 활용해 '여자/남자'로 행동해봄으로써 성별고정관념을 인식하고, 현실과 관념 사이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업 목표이다.



이럴 때 활용해요!

-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를 웃음의 소재로 삼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예) 학예회, 장기자랑과 같은 행사에서 여장 남자를 개그 소재로 활용한 경우
- 학생들에게 성별고정관념의 허구성, 과장성에 관해 설명하고 싶을 때 등

I 수업 내용

● 목표

- 드라마 활동을 통해 성별고정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 활동

연극놀이	(손님 모셔오기 놀이) 의자를 인원보다 한 개 많게 놓고 원형으로 둘러앉는다. 빈자리 양 옆에 앉은 두 학생이 손님 한 명을 모셔온다.
드라마활동1	(그대로 멈춰라) 모두 공간을 자연스럽게 건다가 교사가 불러주는 문장에 알맞은 몸짓을 하며 정지한다. 교사는 성별을 지칭해서 문장을 만들고, 성별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학생에게 가서 움직임 보여주도록 요청한다.
드라마활동2	(인물로서 살아보기) 모둠별로 여자아이/남자아이 방을 상상하여 재현한다. 교사가 상황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방에 들어가 알맞은 동작이나 대사를 하고 공간 밖으로 나온다.
느낌나누기	성별에 따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행동했던 점을 짚어 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유의사항

- 같은 동작임에도 성별에 따라 행동에 차이가 생기는 점,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점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돕는다.

주제별 성평등 교육 수업 활용가이드

‘자아정체성’ 편



기 획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 발 | 김시원(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
디 자 인 |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발행년도 | 2020
발행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